

## ▶ 의생활

## 현대패션에 표현된 넥타이 연출에 관한 연구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근대 남성복에서 시작되어 현대에까지 남성정장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인 넥타이는 남성의 멋을 외면으로 한껏 표출해 줄 수 있는 개성적인 장신구일 뿐만 아니라 현대여성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출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다양한 경향 속에서 넥타이 연출을 통해 표현되는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대패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적의미를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넥타이(Neck Tie)는 목에 두르는 길고 좁은 밴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기원은 크라바트에서 시작되어 17세기 슈타인케르크(Steinkerque), 18세기 스톡(Stock)와 솔리테르(Solitaire), 애스컷 타이(Ascot Tie), 19세기 포인 핸드(Four in hand Tie)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넥타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포인 핸드(Four in hand Tie)와 보우 타이(Bow Tie), 애스컷 타이(Ascot Tie)라 할 수 있다. 넥타이는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나, 여성복에 넥타이를 연출시키는 경우 포인 핸드 타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넥타이 문양의 다양화보다는 넥타이 자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목둘레 장식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로 전환시켜 새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넥타이 연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이미지들을 창조하고 보여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의복은 성적고정관념과 성역할, 사회적인 풍조,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의 탈피를 보이면서 패션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의 상징물 처럼 여겨지던 넥타이는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그 원형을 유지한 채 남성복이나 여성복의 다른 아이템들과 함께 연출되어 여성 패션에 있어 양성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을 뛰어 넘어 한 가지 성 위에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게 하여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며 이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세기 후반 현대패션의 탈모더니즘 현상에 따라 넥타이 연출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형태가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과 의미의 불확정성을 제시하는 등 해체성의 전개를 나타냈다. 따라서 넥타이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스카프, 허리벨트, 앞트임장식 등으로 전환되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착장 방식 그리고 비정형적인 형태변화를 통해 탈구성적인 연출을 시도하는 등 새롭고 감각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넥타이 연출은 현대패션 트렌드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해 다양한 표현방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상 뿐만 아니라 기타 장신구 디자인이나 연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보다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 창출이 전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